

美術作品을 통하여 본 齒科医学

Unique Dental Hygiene Symbol for Af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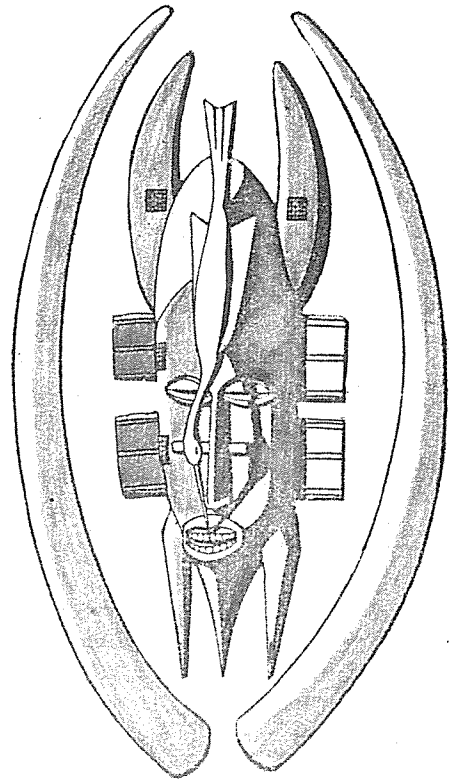
현대미술에서 아프리카는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중에도 가면은 주술결사의 상징이며 그것을 쓸때 자연을 지배하는 자연신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때로는 악마도 또는 만능신으로 역할하였다. 아프리카 가면은 그양식이 다종다양하며 인물형태의 아름다움을 구하지 않고 아니미스틱한 목적으로 가면을 만들었고 그가면에서 예술성 유무를 따지지 않았다.

문제는 그들이 형식보다 대상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을 구하는 그들 자신의 생에대한 진실성을 가면에 옮겼을 뿐이다. 여기에 흥미있는 그가면을 치과나 구강위생의 한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작품을 소개한다.

이紀章은 1960년대에 만든 작품으로 「SESDA」 즉 「남 아프리카」 치과 의사회 의 표식으로서 두개의 커다란 코끼리 상아에 둘러 쌓인 「아프리카」 가면으로서 새한마리가 가면속의 치아를 쪼고 있는 장면이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악어는 그의 입을 벌려 새들이 와서 이사이에 낀 음식물을 쪼아먹고 이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자연계에 없어서 안될 하나의 공존 현상이지만 구강위생이란 입장에서 볼때 놀라운 사실이다.

여기에는 흑·백·청의 3색을 많이 썼는데 흑백과 청백의 착색은 재생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가면의 밑을 상악구치의 3根으로 처리하였는데 그 삼각은 안정성을 뜻한다.



研究와 精進을 指向하는

寶 城 合 金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65

代表 朴 允 三

☎ (253) 3411 · (255) 3024